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재현성과 비재현성

이영미 · 김성남*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박사과정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교수*

Recurrence and Non-recurrence Appearing in Contemporary Hairstyles

Lee, Young-Mi · Kim, Sung-Nam*

Doctor's Course, Dep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rof, Dep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contemporary hairstyles are expressed based on the recurrence and non-recurrence of sim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Recurrence appeared as imitation which re-expresses the image of past hairstyles, change which borrows unordinary objects from previous hairstyles, and expansion which extends the volume in hairstyles. 2) For nonrecurrence, there were an absence of hairstyles which rid reality, a sub-culture as a disband of fixed perceptions, a combination with other genres, an ambiguity of hairstyles appearing as a fusion effect and a Kitsch phenomenon, an ambiguity of hairstyles where a totally different third image appears through dichotomy concepts combined.

Key Words : hair Style(헤어스타일), representation(재현성), non-representation(비재현성), simulation(시물라시옹), image(이미지)

1. 서론

1. 연구 목적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항상 갈구되어 왔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미적 가치들이 생겨나면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문신 등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신체의 일부분이면서 약간의 변화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동 시대의 사회 및 문화의 변동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진다. 현대의 헤어스타일은 한 가지 유행 패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이 이미 지로서 유행 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자연, 기후, 환경 등의 영향으로 표현되거나 과거 스타일을 다시 재현한 헤어스타일, 도구나 약제 등의 발달로 새로운 헤어스타일, 사회적 현상 등과 맞물려 비재현적인 헤어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탈규격화, 개성화, 세분화, 분권화 등의 다양화된 성격을 띠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두 되면서 나타났다. 현실/가상, 본질/현상, 이성/감성, 텍스트/이미지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관점의 플라톤주의가 흐르는 가운데 이미지는 현실을 가리키는 가상에 불과했다.¹⁾ 그러나 현대 예술가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시뮬라시옹 이론을 통해 미술 표현에 있어서 전통적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이 이미지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²⁾

시뮬라시옹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가 실재가 되어서 진짜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특히 소비와 재화, 그리고 정보가 풍부한 현대 사회는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새로운 문화적 특징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TV, 모바일 정보통신 등의 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반복되는 미디어 자극이 기존의 시공간 구조와 사고 구조를 파괴하고, 현실과 이미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실재에 근거하지 않는 복제된 이미지를 생산한다. 이미지가 실재를 넘어서 현실의 사회를

지배하는 시뮬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 현상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뮬라시옹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의 다양한 현상을 연구하는 미용학의 분야에서는 주로 포스트모더니즘 측면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로는 조미영³⁾은 21세기 이전의 헤어스타일에 보인 해체적 특성에 관해 성과 민족주의, 기존 방식의 해체로 분류하여 연구하였고, 이수인⁴⁾은 현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 양상에 대해 컬렉션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김미향⁵⁾은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에 대해 패션 잡지와 헤어 잡지 등으로 연구하였고, 김재성⁶⁾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성, 시간적, 공간적,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김민영⁷⁾은 21세기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헤어스타일 패러디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일부 개념적 측면의 연구만 있었을 뿐 시뮬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시대의 문화적 특징이 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미지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시뮬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에 근거하여 현대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시뮬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미용학에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이미지를 분석하는 틀을 정립함과 동시에 미학적 측면에서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시뮬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국내외 관련 서적, 논문, 간행물, 문헌 자료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사례연구로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통해 헤어스타일의 재현과 비재현의 각 단계에 합당한 사례를 선택하고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패션, 헤어스타일 전문잡지를 비

롯하여 패션 전문사이트에서 헤어스타일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사례를 연구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함께 이해되어져 하며,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헤어스타일에 대한 미의식의 반영은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결정하므로 헤어스타일 연구는 사회문화와 예술과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은 헤어스타일과 시뮬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에 관한 개념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고,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시뮬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의 특성을 도출하여 이 헤어스타일에서 어떤 양상으로 표현되었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시점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많은 정보와 국제 교류가 빈번해진 사회 속에서 다원화된 양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어 헤어스타일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2005년부터 2009년의 현대 헤어스타일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헤어스타일의 개념

헤어스타일(Hair Style)은 헤어모양, 머리형태, 머리풍을 말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는 꾸아튀르(Coiffure)이다. 개성 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시대, 지역,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헤어스타일은 계급과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회적 상징요소이기도 하였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시대, 민족, 개인에 의해 가지각색으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 머리 형태는 끊임없이 일종의 머리 덮개로서 역할을 해 왔다. 두 번째, 특정한 변칙적 시기를 빼고 확실한 성차별 없이 계급 차의 상징이 되고 있었으며 세 번째, 그 단독으로 혹은 모자나 머리 장식과 머리 부분의 변형과 수식에 커다란 역할을 다해 왔다. 네 번째, 그러 인해 헤어스타일은 때로는 조화롭고 때로는 대립적인 형태로 의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다섯 번째, 결과적으로 그것은 머

리를 눈 가장자리로서 머리부분과 구간부와의 독립화와 연대화의 정도를 표시하는 각종 경우로서 받아들여 진다는 것 등이다.⁸⁾

개인의 헤어스타일은 인상을 평가할 때 얼굴의 생김새와 함께 전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빨간 옷과 검은색 머리는 강하고 단호한 성격을 나타내며⁹⁾” 음양 성격을 나타내는 인상은 가발과 의복색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짧은 머리의 남성은 일반적으로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은 이미지¹⁰⁾”로 평가 되어 짧은 머리형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수적이고, 긴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다 자유주의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은 계급, 성별, 신분뿐만 아니라 성격, 인상,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며 좋아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시뮬라시옹 이론

시뮬라시옹이란 ‘시뮬라크르 하기’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시뮬라크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든 인공물로 복제에 복제를 통해 원본을 넘어선 복제를 가리킨다.¹¹⁾

어떠한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이미지이고, 이러한 이미지를 생산하는 힘이 상상력이며, 이미지에 의해 구성된 세계가 상상세계이다. 이미지가 모방할 혹은 재현할 실체가 없거나 이미지가 실체인 세계에서는 상상세계는 존재를 상실한다. 이미지는 그것이 무엇 이건 간에 어떠한 사실성과도 무관하며, 기호와 그 지시 대상과의 분리 현상은 위장된 이미지인 시뮬라크르(simulacre)를 만들어낸다.¹²⁾ 보드리야르 이론의 핵심 개념인 ‘시뮬라크르’는 원래 1960년에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사용했던 것을 보드리야르가 예술과 대중문화에 관한 현대 이론인 시뮬라시옹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이제까지 미디어는 그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빈 그릇으로 여겨졌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도입으로 초래되는 사회의 환경 및 인간의 지각 패턴의 변화이다. 이렇게 메시지보다 미디어에 주목하는 것은 기의보다 기표를 중시하

는 프랑스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¹³⁾ 모방(imitation)이나 재현(representation)과는 다르게 시뮬라크르는 원상이 없는 이미지로서, 그 자체로 현실을 대신하고 현실은 시뮬라크르에 의해 지배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시뮬라크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칭한다. 이는 흉내 낼 대상이 없는 이미지이며, 이 원본 없는 이미지가 그 자체로서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 이미지에 의해서 지배 받게 되므로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다. 모든 권위가 실제 권위를 위장하기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생산, 소비, 정보가 넘치게 되면 시뮬라시옹을 겪게 된다.¹⁴⁾ 이렇게 이미지가 넘쳐 나서 현실이 모호한 지경이 되면 시뮬라시옹의 시대가 열리고, 모든 지시대상은 소멸되어 버린다. 오히려 실재보다 시뮬라크르를 더 좋아하는 사회에서는 실재가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시뮬라크르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라진 실재의 인위적 부활과 실재감의 부활이 일어난다.¹⁵⁾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였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중세의 신본 사회와 신중심 사회가 종말을 고하는 르네상스 시기는 신(神)의 질서에서 자연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여기서 예술은 자연의 모방하고자 하며, 기호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사회는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조는 공산품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테크놀러지와 기술복제는 새로운 실재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산업적인 모조는 시리즈로 2개 혹은 n개의 동일한 사물이 가능해지며, 원본과 모조는 차이가 없는 '등가(equivalence)'의 특성을 지니며 사물의 고유성과 독창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르네상스에서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재현은 항상 현실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 이후 후기 산업사회로 명명되는 오늘날의 모조 개념은 자연적 현실이나 등가성의 기계적인 연속물이 아니라, 컴퓨터 디지털 기호와 DNA 같은 순수 기호들의 조합인 가상현실의 모조로서 무한대로 동일하게 모사된다는 점에서 원본과 사

본, 현실과 재현의 차이 내지 간극이 없어진다. 여기서는 현실을 모방한 것이 재현이 아니라, 재현된 것을 통해서 현실이 확인되는 전도(顛倒)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시뮬라크르 시대에는 가상물들이 현실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를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라 부른다.¹⁶⁾ 이것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원본보다 더 원본의 행세를 한다. 시뮬라시옹은 원본도 사실성도 없는 실재, 즉 파생 실재인 하이퍼리얼리티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파생 실재는 가장(假裝, semblance)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실재가 가지고 있는 사실성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는다.¹⁷⁾ 실재가 시뮬라시옹되어 그 원본성을 잃은 시뮬라크르가 되며, 이는 다시 가장되어 하이퍼리얼리티가 된다.

3. 재현성과 비재현성

재현은 예술철학에서의 개념과 일반적 재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예술적 행위를 규정하려고 도입한 모방은 그리스어로는 미메시스(mimesis), 라틴어로는 이미타티오(imitatio)라 일컬어졌다.¹⁸⁾ 모방이란 실재를 닮고자 하는 행위로서, 오늘날의 복사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최초의 그리스적 의미는 큰 차이가 있었다. 미메시스란 용어는 처음엔 숭배의 차원에서 철학적 용어로 변용되어 외면세계의 재생을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광의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미메시스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자연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있는 그대로의 재현의 의미일 것이며, 둘째는 작가적 해석에 따른 객관적 실재에 대한 주관적 재현의 의미일 것이다.¹⁹⁾

일반적 재현 개념은 재현(representation)이란 말 그대로 다시 나타남, 다시 나타냄을 의미한다. 무언가를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관찰하는 외부의 세계에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을 거쳐 다시 나타내어지는 것이 바로 재현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인 것이다. 실재는 재현을 통하여 이미지가 되며, 실재는 이미지를 지배한다.

넓은 의미에서 추상은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는 본질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각종 수단을 이용해 육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도 재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하지만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풍경을 그와 똑같이 그리는데 과정과 약간의 변경이나 추가를 재현이라 한다면 추상 작업은 비재현이라 할 수 있다.

재현과 비재현은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예술 현상 모두 상징적인 이미지와 기호의 논리로 설명하였고, “실재가 이미지와 기호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²¹⁾고 주장하였다. 이는 시뮬라시옹 시대의 이미지는 창의적인 생산이 아니며, 대량 생산에 따른 재생산 즉 복제의 형태로 실재성은 없어져버리고 시뮬라크르만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중은 시뮬라크르의 이미지를 소비하게 된다. 그 예로 대중들이 코카콜라를 마실 때 소비하는 것은 음료수 그 자체가 아니라 코카콜라의 이미지 즉 ‘젊음’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물 그 자체 보다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는 비재현성과 연관이 있는데 실재 코카콜라는 음료이지만 대중이 요구하는 것은 ‘젊음’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기호는 또 다른 기호를 산출하며 나아가 실재와 기호의 구분이 없는 단계가 이르게 되고, 실재보다 더 실재같은 하이퍼리얼리티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기호는 실재와 무관한 자기 자신의 순수한 시뮬라크르가 된다.²²⁾

미디어 이론가 권터 안더스(G. Anders)는 텔레비전 영상을 팬텀(phantom), 즉 가상도 실재도 아닌 제 3의 존재로 규정하고, 미디어가 매트릭스(matritze)

로서 사건보도의 어떤 선행적 틀에 따라 찍어내는 세계를 거대한 가상현실로 바라본다. 안더스 역시 원본과 복제의 구별이 사라지고 복제가 원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아예 세계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²³⁾

이렇게 이미지가 재현에서 시뮬라크르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드리야르는 4단계로 설명한다. 1단계에서 기호는 기본적인 리얼리티를 반영하며, 과학적 언어나 지시적 언어의 단계이다. 2단계는 기호가 기본적인 리얼리티에 가면을 씌우고 그것을 왜곡하고, 기호에 의하여 이데올로기나 이론이 소비자로서의 대중으로 하여금 소외와 착취의 실상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 단계이다. 3단계에서 기호는 기본적인 리얼리티의 부재에 가면을 씌우고, 이 단계에 대해 보드리야르는 성상파괴자들의 광포함을 예로 들고 있다.²⁴⁾ 마지막 4단계는 이미지가 실재와 전혀 무관한 스스로 순수한 가짜로서 ‘시뮬라시옹’의 단계이다.²⁵⁾

1단계와 2단계는 실재를 반영하며 왜곡하고 변질 시킴으로 실재가 이미지를 지배하는 재현성이라면 3단계와 4단계는 실재가 부재하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비재현성으로 볼 수 있다. 이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단계를 <표 1>에 나타내었다.

III. 현대 헤어스타일에서 나타난 재현성과 비재현성

20세기 후반 전통적이고 이분법적인 사회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고, 감성에 대한 기대, 다원적 해석의 가능성, 주변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조명 등과

<표 1>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단계

단계	내용	재현과 비재현
1단계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의 반영이다	재현성
2단계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을 감추고 변질 시킨다.	
3단계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의 부재를 감춘다	비재현성
4단계	이미지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어떠한 사실성과도 무관하다. : 이미지는 자기 자신의 순수한 시뮬라크르이다.	

같은 혁신적인 사고와 문화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나며 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각예술은 각기 '실재'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나타나며 이것은 이미지로 그 의미작용을 하였다.

탈근대적 현대사회에서 상징적 기호로써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역시 재현의 원본이 되는 대상을 닮게 모방하여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고전적인 재현물과 실제와 원본의 대응관계가 해체되고, 상호 지시적인 텍스트성 속에서 실재가 부재되고, 내파되는 시물라시옹의 하이퍼리얼리즘의 비재현으로 나타났다. 이는 헤어스타일의 형태와 표현 기법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의 본질을 해체하고 있다.

1. 헤어스타일의 재현성

1) 1단계 :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의 반영이다.

(1) 모방성

신성한 형태 재현의 의미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본질적인 리얼리티를 표방하며, 합리적 인식의 형태로 표현된다.²⁶⁾ 시물라시옹의 근원적 출발은 미메시스에 의한 모방, 즉 원본의 재현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백 년 동안 회화나 조각 등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 모방의 재현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사진과 인쇄술의 발명으로 모방의 수준은 더 현실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헤어스타일에서도 과거에는 상류층, 현재에는 연예인의 패션 리더들에 의해 헤어스타일이 모방되고 있다. 그 예로 퐁파두르 스타일과 같이 특정한 인물의 이미지를 모방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림 1>은 퐁파두르(Pompadour) 이미지가 실존했던 그 당시에도 유행이 되었고 현재에도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빗어 넘길 우아하고도 깔끔한 머리형²⁷⁾이 현대에도 <그림 2>와 같이 모방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지는 깊은 사실의 반영으로 과거의 이미지를 모방한 모방성이 현대에도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2) 2단계 :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을 감추고 변질시킨다.

이미지 변화에서 사실성을 감추고 변질시키는 단계는 이미지가 점점 사실적 실체를 망각해 가는 과정이다. 사실성의 진실을 감추고 이미지는 곧 다른 외양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상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실재와는 서로 다른 형상을 가지며 점차 변이되어가는 것이다.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을 감추고 변질시키는 것을 비일상적인 오브제와 형태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1) 변화성

시물라시옹 세계에서 일상적인 사물의 의미를 변형시켜 새로운 요소들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독창성을 표현하는데 헤어스타일 연출 재료, 일상용품 등도 그 고유한 의미가 상실되고 다양한 의미로 존재하였다. 헤어스타일을 연출함에 있어서도 그 재료와 전혀 무관한 일상용품이 이질적인 벽을 넘어 재료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여 의미의 변화성을 보여주며 또한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사물이 전혀 다른 요소들과 조합하여 헤어스타일에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림 3>은 자동차 휠을 헤어에 도입함으로써 다의적이며 유희적 감각으로 헤어스타일에서 변화성을 나타내고 있다.

(2)확장성

확장은 역동적 공간을 창출하여 평면이나 임의 공간적 확보나 점유에 있어 시각적 인지에서 크고 지니침이 확연히 구분되어진다. 시물라시옹의 세계에서 기본적 실재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단계로 확장성은 볼륨이나 크기의 확대와 앞면과 뒷면이 바뀐 형상을 말하였다. <그림 4>는 헤어스타일의 볼륨의 크기와 앞면과 뒷면이 바뀐 형상을 확장성으로 표현하였다.

2. 헤어스타일의 비재현성

1) 3단계 :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의 부재를 감춘다.

개념의 사유가 시작되고, 인간의 개념적 총위가 고차원화 되면서 기호화 되는 실재에 부재의 가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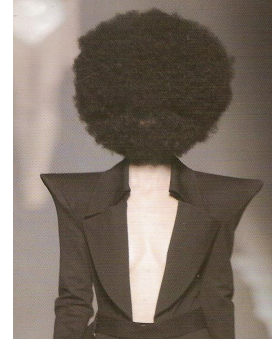
<그림 1> 풍파두르
후작부인의 초상, 1759
- 프랑수아부세



<그림 2> 09F/W
- 짝 포슨



<그림 3> 09F/W
- 알렉산더 맥퀸



<그림 4> 09S/S
- 메종 마르탱
마르지엘라

씩운다. 시물라시옹의 이론에서 이미지가 실재를 지배하는 것처럼, 헤어스타일에서는 그 본질적인 기능과의 대응관계를 해체하여 실재를 부재시키는 것과 개념의 모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재현의 특징을 나타내는 헤어스타일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비실재이지만 실재 그 자체보다 더 실재 같은 새로운 이미지 기호로서 작용하여 하이퍼리얼리티가 되며, 전통적 개념으로부터 단절하며 포스트모더니티를 획득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로 시물라시옹 되고 있다.

(1) 부재성

헤어스타일은 머리덮개로서의 역할도 있으며 두상의 재현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적, 성적, 심리적 정체성의 상징적 재현으로 상호 의존적 재현이었으나 시물라시옹 헤어스타일은 상호독립적인 비재현 양상으로 나타나며 개성, 시대 문화적인 배경의 매개체로서 상호의존적 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특히 헤어스타일은 두상을 대신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두상의 재현이 부재한 헤어스타일, 성이 부재한 헤어스타일, 전통적 인간 형상이나 인간관에서 이탈한 헤어스타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비재현적인 시물라시옹의 현상을 두상의 부재, 성의 부재, 인간성의 부재로 구분하였다.

① 두상의 부재

헤어스타일은 머리덮개로서 역할을 하며 두상의

부재는 머리 형태에 대한 변형으로 나타나는데 재현의 포기, 비재현의 현상에서 두상은 헤어스타일이 가지는 본질과 기능이 부재되었음을 감추기 위해 존재하게 된다. 즉 헤어스타일은 두상위에 나타나고 두상을 중심 개념에 충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로는 기능이 없어진다. 이는 헤어스타일이 가시적 형상으로서 두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두상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이미지가 되는 것을 말하며, 실재의 기의가 부재된 시물라시옹의 기호가 보여주는 가상의 실재로 하이퍼리얼리티가 된다.

헤어스타일의 두상의 비재현성은 두상 중심의 표현방식에서 벗어난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5>은 09 S/S 메종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작품으로 두상과 양어깨에 또 다른 두상이 있는 것 같은 이미지의 연출로 하이퍼리얼 되고 있다.

② 성의 부재

성의 부재는 인간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서 양성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상호텍스트로 듀얼리즘(dualism)을 나타내는 성의 상호 텍스트성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카오스 현상, 가치경계의 혼란, 뉴소사이어티적 바탕에서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모순된 양면성을 하나로서 인정한다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질서를 거부하는 절대적 성의 구분이 없는 무성을 나타내는 젠더리스(genderless) 헤어스타일, 자기성에 대한 부정과 다른 성에 대한 도착적 추구로 동성애적인 성향의 호모섹슈얼리즘(homos

exualism)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젠더리스 헤어스타일은 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녀 비슷한 스타일, 이성의 특징적인 헤어스타일 공유 등으로 성의 구분 없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성에 대한 도착적 추구하고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을 호모섹슈얼리즘 헤어스타일이라 한다. <그림 6>은 중성적인 스타일로서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되는 성의 이분법에 대한 반항으로 성구분이 모호한 무성을 나타내는 젠더리스 헤어스타일이고, <그림 7>은 자기와 반대되는 성의 헤어스타일을 따라감으로서 다른 성에 대한 도착적 추구하고 이를 통해 부재된 의미로서 성에 대한 비재현성을 보여주는 호모섹슈얼리즘 헤어스타일로 나타났다.

③ 인간성의 부재

현대의 시대정신인 컴퓨터와 하이테크놀로지 문명에 의한 파괴와 해체는 인간존재의 무상함과 허상을 드러내며 소통단절, 인간 소외 등을 불러 일으켰다. 가상의 세계에서 인간상은 기계화와 기형화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공상 영화나 막연한 미래상으로만 제시되었던 합성된 인간의 모습이 시뮬라크르라는 하이퍼리얼 한 실재로 등장하고 있다. 가상의 시뮬라시옹 세계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하여 실재와는 다른 육체와 정신을 가진 새로운 인간성의 소유자로 탈바꿈이 가능해졌다.

인간성의 부재는 실재의 이미지와 시뮬라크르된 가상의 이미지의 공존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인물과의 합성된 가상의 헤어스타일이 실재를 대신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가상현실을 통해 헤어스타일이 실제인물과의 합성된 가상의 두상에 씌워짐으로서 실재를 대신 하는 시뮬라시옹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8>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가상 현실을 통하여 헤어스타일이 실제 인물과이 합성된 가상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실재를 대신하는 이미지로 비재현성을 나타낸다. 또한 이런 가상 이미지를 응용하여 장규순²⁶⁾은 시뮬레이션을 기법을 활용한 토털코디네이션 연출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를 하였다.

(2) 모호성

과거에 존재하는 문화의 경계, 장르간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장르나 형식간의 절충으로 비재현성을 나타낸다. 헤어스타일의 모호성은 고정관념의 해체로서 하위문화, 타 장르와의 결합, 퓨전현상, 키치현상 등으로 보이며 이는 시뮬라시옹의 기호가 다양한 기표의 혼합에 의한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의 창출이라는 측면을 잘 표현하였다. <그림 9>은 펑크족을 연상시키는 컬러풀한 헤어 색상과 우아하게 볼륨을 살린 머리, 그리고 여성을 상징하는 베일이 결합한 스타일로서 고급문화요소와 하위문화요소의 융화에 의한 경계의 모호성으로 비재현성이 나타났다.

4) 4단계 : 이미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실재와 무관하다. 이미지는 자기 자신의 순수한 시뮬라크르이다.

(1) 혼성성

혼성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며, 이는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기호체계, 더 나아가서는 문화 일반까지 포함하고 있다.²⁹⁾ 현대 헤어스타일의 혼성성은 탈중심의 해체원리, 병행인용,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 등의 특징들은 시뮬라시옹 기호가 기표와 기의의 해체로 새로운 실재로 존재하며 비재현양상으로 나타났다.

헤어스타일의 혼성성은 남성 대 여성의 성 역할 고정 관념 해체로 인한 성의 혼성성, 과거의 헤어스타일을 현대 헤어디자인에서 재해석하는 복고성과 광택 소재를 사용한 미래주의적인 시대의 혼성성, 서구대 비서구, 민족대 민족으로 구분되는 텍스트들이 상호 텍스트로서 기표간의 결합을 통해 시뮬라시옹 이미지를 만드는 장소의 혼성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성의 혼성성

모더니즘의 이원론적 철학은 인간을 남성/여성이라는 양극적 요소로 나누어 남성은 남성다움, 여성은 여성다움을 강조하였으며 헤어스타일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남성

다음, 여성다움의 이분법이 사라지게 되어 여성과 남성의 내외적 통일체를 형성하여 양성화를 꾀하며, 하나의 스타일로 믹스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상호 텍스트적 기호가 크로스 기법으로 서로 결합된 시뮬라시옹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남녀 간의 특징 조화, 성의 내적 결합, 여성의 가치부상 등으로 나타나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e), 남녀 간의 외적 동화현상인 유니섹스(unisex)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한 시뮬라시옹 감각의 디자인으로 남성의 전유물이던 민머리를 여성이 도입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② 시대의 혼성성

고대부터 근대까지 다양한 과거 헤어스타일을 현대 헤어디자인에서 재해석하는 복고성(retro)와 금속

성, 플라스틱 등과 같은 광택 소재를 사용하여 기계적 메시지를 나타내는 미래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미래주의(futurism)으로 시간의 혼성성으로 나타났다. <그림11>은 로코코 시대의 가발을 현대적인 소재 플라스틱으로 재구성하여 과거, 현재의 이미지가 혼재된 양상의 비재현성을 보여 주었다.

③ 장소의 혼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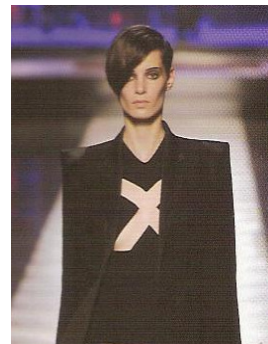
서구 대 비서구, 민족 대 민족으로 구분되는 텍스트 들이 상호 텍스트로서 기표간의 결합을 통해 시뮬라시옹 이미지를 만들어 내며 원시풍(primitive), 동양풍(oriental), 민속풍(ethnic)등으로 나타난다. <그림12>은 동양풍의 헤어스타일을 현대적인 의상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동양풍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5> 09S/S
-매종 마르탱 마르지엘라



<그림 4> 08S/S
-안 드월미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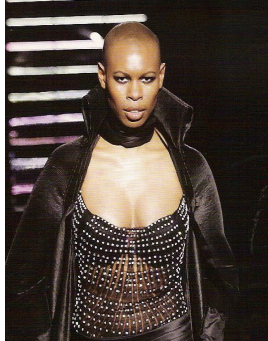
<그림 7> 09F/W
-장 폴 고티에



<그림 8>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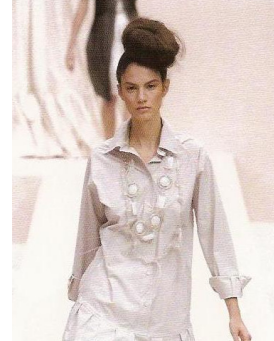
<그림 9> 09F/W
-콤데가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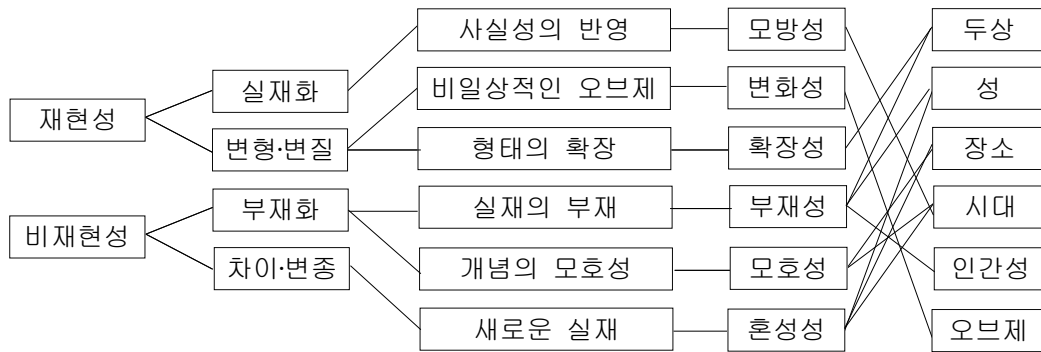
<그림 10> 07F/W
-지안프랑코 페레



<그림 11> 09F/W
-바쇼엔브룩



<그림 12> 08S/S
-모스키노



<그림 13> 시물라시옹의 이미지 변화단계와 헤어스타일 특성

이상과 같이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재현성과 비재현성은 실재를 이미지가 닮고 변형시켜 표현하는 재현성과 실재를 넘어서 이미지가 우월하게 되며 실재가 부재되고 실재가 없어지는 비재현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었다. 재현성은 1단계 과거의 이미지를 모방한 모방성, 2단계 비일상적 오브제의 변화성과 형태의 확장적 표현으로 확장성으로 나타났다. 비재현성은 3단계 실재의 부재인 부재성이 두상의 부재, 성의 부재, 인간성의 부재로 나타났고, 문화,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호성이 나타났다. 4단계는 혼성성으로 성, 시대, 장소의 혼성으로 비재현적 특성의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그림 13>에서 시물라시옹의 이미지 변화단계를 분석하여 재현과 비재현으로 표현된 헤어스타일 특성을 나타내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시대의 문화적 특징이 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미지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시물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에 근거하여 현대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시물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미용학에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이미지를 분석하는 틀을 정립함과 동시에 미학적 측면에서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과 시물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에 관한 개념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고,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시물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의 특성을 도출하여 헤어스타일에서 어떤 양상으로 표

현되었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시물라시옹의 이미지 변화단계의 1·2단계는 실재를 이미지가 닮고 변형시켜 표현하는 재현성으로 나타났고, 3·4단계는 실재를 넘어서 이미지가 우월하게 되며 실재가 부재되고 실재가 없어지는 비재현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었다. 1단계는 실재화, 2단계는 변형·변질, 3단계는 부재화, 4단계는 차이·변종으로서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표현방법으로는 실재화는 자연주의적 묘사, 변형·변질은 비일상적인 오브제와 형태의 확장으로 표현되었다. 부재화는 실재의 부재와 개념의 모호성으로, 차이·변종은 새로운 실재로 표현되었다.

1. 헤어스타일의 재현성은 실재화와 변형·변질로 분류할 수 있었고, 실재화는 과거에는 상류층이 현재에는 연예인들과 같은 패션리더들에 의해 헤어스타일이 모방되는 모방성으로 나타났다. 변형·변질로는 비일상적인 오브제와 형태의 확장으로 표현되었다. 시물라시옹 세계에서 일상적인 사물의 의미를 변형시켜 새로운 요소들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독창성을 표현하듯이 헤어스타일에서도 연출 재료, 일상용품 등이 그 고유한 의미가 상실되어 표현됨으로서 변화성이 나타났다. 또한 볼륨이나 크기의 확대와 앞면과 뒷면이 뒤바뀐 확장은 두상의 변형·변질로서 확장성을 표현하였다.

2. 헤어스타일의 비재현성은 부재화와 차이·변종으로 나타났고 부재화는 실재의 부재와 개념의 모호성으로 구분 할 수 있고 실재의 부재는 두상의 부재, 성의 부재, 인간성의 부재로 나타났다. 실재의 부재는 머리 형태에 대한 변형으로 두상은 헤어스타일이 가지는 본질과 기능이 부재되었음을 감추기 위해 존재하는 두상의 부재, 사회적 질서를 거부하는 절대적 성의 구분이 없는 무성을 나타내는 젠더리스 헤어스타일이나 다른 성에 대한 도착적 추구로 동성애적인 성향의 호모섹슈얼리즘은 성의 부재로 부재성이 나타났다. 또한 실재의 이미지와 시물라크르된 가상의 이미의 공존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헤어스타일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실제인물과 합성된 가상의 헤어스타일이 실재를 대신하는 인간성의 부재 역시 부재화를 표현하고 있다. 모호성은 고정관

념의 해체로서 하위문화, 타장르와의 결합, 퓨전현상, 키치현상 등으로 보이며 이는 시물라시옹의 기호가 다양한 기표의 혼합에 의하여 비재현성을 나타내고 있다.

차이·변종은 새로운 실재로서 탈중심의 해체원리, 병행인용,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 등의 특징들이 시물라시옹 기호가 기표와 기의의 해체로 새로운 실재로 존재하며 비재현 양상으로 혼성성이 나타났다.

3. 재현성으로 나타나는 헤어스타일의 자연주의적 묘사는 모방성으로 시대에 관련있는 표현이 많았고, 비일상적인 오브제는 변화성으로 오브제, 형태의 확장은 확장성으로 두상의 표현으로 많이 나타났다.

4. 비재현성으로 나타나는 헤어스타일의 실재의 부재는 부재성으로 두상, 성에 따른 표현이 있었고, 개념의 모호성은 모호성으로 장소, 시대, 새로운 실재는 혼성성으로 성, 장소, 시대에 따른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은 모방성, 변화성, 확장성, 부재성, 모호성, 혼성성으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인 시물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의 특성을 잘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물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미용학에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이미지를 분석하는 틀을 정립함과 동시에 미학적 측면에서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시물라시옹의 재현과 비재현의 특징이 나타나는 메이크업과 의상과의 관계 등 다양한 분야들이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심광현(1998), *탈 근대문화정치와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p.317.
- 2) 임은혁(2007),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재현성", *복식문화연구* 15(4), 605
- 3) 조미영(1999),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4) 이수인(2005),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 양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5) 김미향(2005),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김재성(2005), "현대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불확정성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김민영(2007), "21C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헤어스타일 패러디",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김양휴(1996),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13.
 - 9) Lynn Mahannah(1968),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Nevada : University of Nevada, p.34.
 - 10) D. Peterson · J. P. Curran(1976), "Trait attrac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s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93(2), p.331.
 - 11) Jean Baudrillard(1981), *Simulacres et simulation*, Paris : Galilee, pp.30-31.
 - 12) Jean Baudrillard(1984), *The procession of simulacra*, New York :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p.256.
 - 13) 진중권(2003), *현대미학 강의*, 아트북스, p.260.
 - 14) 보드리야르(1992), *시뮬라시옹, 포스트모던 사회문화론*, 하태환(역), 민음사, p.19.
 - 15) Ibid., p.33.
 - 16) 최광진(2004), *현대미술의 전략*, 아트북스, p.165.
 - 17) 보드리야르, op. cit., p.12.
 - 18) 타타르키비츠(1999), *미학의 기본개념사*, 손호주 (역), 미술문화, p.323.
 - 19) 김현미(2008), "현대공간에서 나타나는 재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8.
 - 20) 장 보드리야르(1981),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하태환(역), 민음사, p.14.
 - 21) Jean Baudrillard(1981), op.cit., pp30-31.
 - 22) 배영달(2005), *보드리야르와 시뮬라시옹*, 살림, pp.50-55.
 - 23) 진중권, op.cit., pp.263-264.
 - 24) 보드리야르, op. cit., pp.23-24.
 - 25) 최광진, op. cit., pp.166-167.
 - 26) 이희정(2007), "부티고 호텔에 나타나는 하이퍼리얼리티 표현특성",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2.
 - 27) 전선정 외(2004),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3)*, 청구문화사, p.118.
 - 28) 장규순(2008),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토털 코디네이션 연출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9) 남수진(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시뮬라시옹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6-47.

접수일(2009년 10월 1일)
 수정일(1차 : 2009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일)